

『사기·항우본기』에서 경극 「패왕별희」까지 - 이야기의 변화와 문화적 수용*

차미경**

<目 次>

1. 들어가면서
2. 패왕과 우희 이야기의 형성과 확장
3. 패왕과 우희 이야기 확장에 따른 패왕과 우희의 형상 변화
4. 나오면서

1. 들어가면서

북경 오페라 '경극'이 우리 곁에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 온 것은 천카이거(陳凱歌) 감독의 영화 「패왕별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오랫동안 초패왕 항우(項羽)와 연인 우희(虞姬)의 러브스토리를 연기해 온 주연배우들의 애증과 인생 역정을 묘사한 이 영화는, 1993년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고, 다음 해에는 신대륙에서 또다시 골든글러브 최우수외국영화상을 획득했다.¹⁾

삶과 죽음을 항우와 우희의 족적대로 따라가는 여자 주인공의 인생처럼, 경극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2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숙명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부 부교수

1) 영화 「패왕별희」는 홍콩의 여류작가 리빠화(李碧華)의 소설 「패왕별희」를 리빠화와 투웨이(盧韋)가 각색하고 천카이거가 영상으로 옮긴 것이다. 원작은 표면적으로는 연애소설이긴 하지만, 경극배우의 운명을 통해 인민공화국의 광기를 묘사하고 공산당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에 비해 천카이거의 영화는 직접적인 정치적 비판을 자제하는 대신 '동성애'라는 코드를 부각시켜 의도적으로 서구관객의 취향과 정치적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볼 수 있다. 후이시소조, 김양수 역 『현대중국, 영화로 가다』(지호, 2001), 53-56쪽 참조.

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프이자 배경이다. 천카이거는 중국의 5세대 대표적인 영화감독답게 의도적으로 나름의 접근 방식을 통해 중국의 대표적인 전통공연예술인 경극과 중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경극의 대표작 「패왕별희」를 세계 문화 예술계에 널리 알렸다.

경극은 노래·대사·동작·무술·화장·의상·소품 등 다채로운 요소들이 모여 이루는 종합 예술이다. 18세기 말에 형성되기 시작한 경극은 중국 연극 발전사에서 가장 늦게 출현한 공연 예술 장르지만 중국 고전극의 미학을 집대성해 최고의 완성미를 보여 중국 의학, 중국 미술과 함께 중국 문화의 정수로 꼽힌다.

이처럼 경극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였기에 대대로 전해진 수많은 이야기들이 누적에 누적을 거듭하여 방대한 작품을 형성했다. 그중 지금까지도 중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경극 작품이 초한전쟁을 배경으로 초왕(楚王) 항우와 그의 연인 우희가 마지막 이별을 하는 「패왕별희」이다. 그렇다면 유독 왜 이 작품이 사랑을 받는지 영화 「패왕별희」에서 사부님이 어린 제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²⁾

경극 「패왕별희」는 초나라와 한나라의 전쟁 이야기다. 초패왕은 누구인가? 천하무적의 영웅이며 천군만마를 다스리는 맹장이었다. 그러나 하늘이 시기하여 유방의 함정에 걸려서 죽는다. 그날 저녁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유방의 사면초가 계책에 초나라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유방에게 나라를 뺏겼다. 패왕도 눈물을 흘렸다. 아무리 맹장이라도 하늘의 뜻을 어길 수 없는 법. 패왕의 운명도 다 되니 남은 건 애첩과 한필의 말 뿐. 말을 살려 보내려하니 말은 떠나지 아니하고, 애첩 우희 또한 곁에 있으려 하네. 우희는 패왕에게 마지막 술잔을 권하고 검무를 추다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결한다. 이 극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사람은 다 자기 운명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좋은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경극 「패왕별희」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항우본기」를 근간으로 진말(秦末) 한초(漢初)의 극적인 역사상을 각색해 초패왕 항우와 그의 연인 우희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재구성한 것이다. 이 작품이 시대를 초월하여 인기를 모으는 이

2) 영화 「패왕별희」 참조.

유는 초한전쟁이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 외에 바로 ‘사람은 다 자기 운명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좋은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교훈’은 무엇인가? 이 ‘좋은 교훈’으로 인해 경극 『패왕별희』는 지금도 중국인의 사랑을 받으며 무대에서 공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영화 『패왕별희』의 등장으로 한국에서도 경극과 『패왕별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으나 실제적인 연구는 주로 영화 『패왕별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³⁾ 이 영화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패왕별희』에 대한 연구는 전혀 진행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우선 패왕과 우희의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패왕과 우희의 이별』로 확장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과정을 통해 패왕과 우희의 이야기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 패왕과 우희의 형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그 변화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그맣고 단순할 수도 있는 『사기』의 한 토막 역사 고사가 어떻게 문학적으로 꾸며지며, 그것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좋은 교훈’으로 윤색되어 중국인의 사랑을 받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2. 패왕과 우희 이야기의 형성과 확장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는 패왕 항우⁴⁾과 우희⁵⁾에 관한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

3) 「영화 패왕별희서사의 다층적 은유」, 「영화 패왕별희를 통해 본 공연예술의 역사성」, 「인생 경극: 영화 패왕별희의 상징성」, 「정치 폭력·동성에·이데올로기적 주체」, 「영화 패왕별희로 본 경극 공연예술」 등이 있다.

4) 항우(項羽, BC 232~BC 202):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다. 강소성 숙천(宿遷) 출신으로, 이름은 적(籍), 자는 우(羽)다. 초나라에서 대대로 장군을 지냈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 부모를 잃고 숙부 항량(項梁)에게 맡겨져 가난하게 자랐다. 신장은 8척(184센티미터)이나 되었고 괴력을 지녔으며, 공부보다는 병법에 관심이 많았고, 어릴 때부터 영웅 기질을 보였다고 한다. 진나라 말에 전국에서 봉기가 일어나자, 숙부 항량과 함께 거병해 세력을 형성했다. 이때 책사 범중의 건의로 초나라 왕족 응심(熊心)을 추대해 봉기의 명분을 얻었다. 항우는 특히 거록(巨鹿) 전투에서 뛰어난 군사적 재능으로 진나라를 격퇴해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가장 강력한 인물로 떠올랐다. 항우는 연전연승을 거두며 동쪽 성문인 함곡

기』 「항우본기」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끊임없이 발전해 왔다. 「항우본기」에서 간략하게 서술된 항우와 우희에 대한 이야기가 발전하여 항우와 우희의 '애절한 이별' 이야기로 확장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장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패왕과 우희 이야기

패왕과 우희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⁶⁾ 「항우본기」에서 처음 시작된다. 「항우본기」는 사마천의 '인간 중심 역사관'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라 평가받고 있다. 그렇기에 사마천은 이런 자신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과 통찰력에 근거하여 항우의 행적을 기술함으로써 「항우본기」에 그의 생생한 인간상을 담아냈다.⁷⁾

관(函谷關)을 넘어 관중(關中)으로 쳐들어갔다. 이렇게 항우가 진군(秦軍)의 주력부대와 결전을 벌이는 사이, 유방은 항우보다 앞서 수도 함양을 함락하고, 진왕(秦王) 자영(子嬰)의 항복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항우는 흥문에서 유방을 만나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그의 계략에 속아 그를 놓아주었다. 항우는 진을 멸한 후, 팽성(彭城)을 도읍으로 정하고 스스로를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라 칭했다. 이때 유방에게 한중 땅을 주고 한왕(漢王)으로 임명했다. 후에 항우는 유방과 중국 천하를 두고 경쟁했는데 마지막 격전지인 해하에서 유방과 한신에게 포위되어 자살했다.

- 5) 우희(虞姬, 미상~BC 202): 항우의 애첩(愛妾)으로, 우미인(虞美人)은 속칭이고 우는 성(姓)이면서 이름이라고도 한다. 진나라 말기 강소성 오현의 우(虞)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자태가 미려하고 검무를 잘 추었다고 한다. 항우의 용맹함에 감복해 그의 첩이 되어 무수한 전쟁터를 누비며 생사고락을 함께했다. 해하에서 항우가 유방에게 물리자 주연을 베풀어 석별의 정을 나누고, 사랑을 지키기 위해 자살했다. 이후 그녀가 죽은 자리에 꽃이 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개양귀비꽃(虞美人草)'라 부르며 그녀의 정절과 미모를 기렸다.
- 6) 前漢시대 漢武帝 때 司馬遷이 저술한 『史記』는 BC 9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고대 중국을 무대로 '역사와 인간'을 탐구한 사마천의 역작이자 명저로 알려져 있다. 사기는 총 130권으로 방대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本記 12권, 表 10권, 書 8권, 世家 30권, 烈傳 70권의 5부로 나누어져 있다. 연대를 따라 평면적으로 기록하는 편년체가 아니라, 역사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부각시키는 '紀傳體'로 쓴 최초의 역사서가 바로 『史記』이다.
- 7) 『사기』는 사마천이 궁형을 당하는 치욕을 겪으면서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發憤의 마음으로 쓴 역사서이다. 따라서 나라에서 권장한 관찬 역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사마천만의 독특한 사관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항우 본기」이다. 사마천은 역사는 개개인의 움직임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으로 「본기」의 시작부터 전설 속 제왕 黃帝를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人'을 역사의 중심에 두고자 했다. 이러

「항우본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시황이 BC 210년 사망한 후 진승과 오광의 난을 시작으로 중국 전역에 많은 군웅들이 봉기하자 항우도 숙부 항량(項梁)과 함께 옛 초나라 지역에서 세력을 결집하였다. 항량이 죽자 유방(劉邦)과 합세하여 함양을 함락하고 진나라를 멸한 뒤 팽성(彭城)에 도읍하여 스스로 서초(西楚)의 패왕(霸王)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한왕(漢王)으로 봉해진 데 불만을 품은 유방(劉邦)이 반기를 들어 관중(關中)을 평정하고 항우에게 도전하게 된다. 이후 초와 한나라 사이에 5년 동안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초반에는 군사력에서 앞선 항우가 절대적으로 유리했으나 유방 측의 간계에 말려들어 해하 전투에서 사면초가를 당하고 결국 오강에서 자결하였다. 이 내용은 후대에 패왕과 우회에 관한 모든 이야기의 주요 배경이 된다. 그 중 패왕과 우회의 대한 이야기가 처음 「항우본기」에 언급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우의 군대는 해하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군사는 적과 군량은 다 떨어
진데다 한나라 군대와 제후들의 병사들이 여러 겹으로 포위했다. 밤에 한

한 인식은 「본기」의 구성에도 파격을 일으킨다. 항우는 진(秦)나라 멸망 후 한(漢)나라가 패권을 차지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천하에 권력을 행사했다. 항우는 한 고조 유방과 끝까지 대적하며 한나라를 멸망 위기까지 몰아넣었던 인물이지만, 사마천은 이러한 항우의 역할을 인정하여 「본기」의 한 편으로 「항우 본기」를 쓰고 「고조 본기」 앞에 두는 모험을 감행했다. 현실을 움직인 실체를 인정하고 인간의 활동을 중심에 두는 사마천의 사관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렇듯 사마천은 인간 중심적 역사관을 기저로 하여 탁월한 안목으로 인간과 세계를 탐구했고, 2000년이 넘도록 '인간학 교과서'라고 불리며 회자되는 『사기』 속에 생생한 인간상을 담아냈다.

- 8) 유방(劉邦, BC 247~BC 195): 한(漢)나라 초대 황제다. 강소성 패현 출신으로, 자는 계(季)고, 묘호(廟號)는 고조(高祖)다. 평범한 농민 출신이었고 어릴 때 가업을 돌보지 않고 유흥(遊俠)이 되어 떠돌아다니다 귀향한 뒤 치안을 담당하는 정장(亭長)을 지냈다. 뒤에 군도(群盜)의 수령이 되었다. 진나라 말기에 향리의 지도자와 청년층의 추대를 받아 군사를 일으켰는데 모두 그를 패공(沛公)이라 칭했다(BC 209). 이듬해 북상해 항량·항우의 군대와 만나 연합 세력을 구축했다. 그 뒤 항우의 군대가 동쪽에서 진군(秦軍)의 주력부대와 결전을 벌이는 사이, 관중(關中)을 향해 남쪽으로 진격을 계속해 항우보다 앞서 수도 함양을 함락하고, 진왕(秦王) 자영(子嬰)의 항복을 받았다. 또 진나라의 가혹한 법률을 폐지하고 법삼장(法三章)을 약속해 인심을 수습했다. 항우가 함곡관에 들어온 뒤 제후들을 봉할 때 한왕(漢王)에 봉해졌다. 후에 항우와 4년에 걸친 쟁패전에서 소하, 조참, 장량, 한신 등 유능한 신하와 장수들의 보좌를 받아 마침내 해하의 결전에서 항우를 대파하고 중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루었다.

나라 군대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 항우가 크게 놀라 말했다. “한나라 군대가 이미 초나라를 얻었다 말인가? 어찌 초나라 사람들이 이다지도 많단 말인가” 항우는 밤에 일어나 막사 안에서 술을 마셨다. 항우에게는 이름이 우(虞)인 미인이 있었는데, 총애하여 늘 데리고 다녔다. 또 이름이 추인 준마가 있었는데, 늘 타고 다녔다. 이에 항우는 비분강개하여 직접 시를 지어 노래를 읊었다. “힘은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개는 온 세상을 덮을 듯한데, 시운이 불리하니 오추마도 달리지 않는구나. 오추마가 달리지 않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우희야 우희야 어찌하면 좋을꼬.” 여러 번 노래 부르니 우희도 따라 불렀다. 항우가 울어 몇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 모두 울어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도 못했다.⁹⁾

위의 내용을 보면 패왕에게는 ‘이름이 우’인 미인이 있어 총애하여 늘 데리고 다녔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 이르러 항우가 비분강개하여 노래를 부르자 따라 불렀다는 것이 전부이다. 우희는 그저 ‘명마 추’와 동격인 미미한 존재이며, 항우가 해하에서 한나라 병사에게 쫓길 때 술, 밤, 초나라 노래와 함께 그의 애달픈 심경을 부각시키는 존재에 불과하다. 그녀의 성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녀가 항우를 따라 전쟁터를 누비며 다녔는지, 무슨 노래로 화답했는지, 그녀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사마천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항우와의 ‘이별’에 대한 서술이 없다. 이로 인해 후대의 많은 작가들에게 상상의 공간을 제공하여 ‘패왕과 우희의 이별’이라는 애절한 「패왕별희」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패왕과 우희의 이야기에 대한 가장 큰 각색이며 창조인 것이다.

2) 금 원본과 원명 잡극의 결합 — 「패왕별희」 이야기의 탄생

그렇다면 ‘패왕과 우희의 이별’ 이야기는 언제 생겼을까? 항우가 자결한 후에 항우에 대한 이야기는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민간전설이나 소설, 희곡 등 문학의

9) “項王軍壁垓下，軍少食盡，漢軍及諸侯兵圍之數重。夜聞漢軍四面皆楚歌，項王乃大驚曰：“漢皆已得楚乎？是何楚人之多也！”項王則夜起，飲帳中。有美人名虞，常幸從。駿馬名騅，常騎之。於是項王乃悲歌慷慨，自爲詩曰：“力拔山兮氣蓋世，時不利兮騅不逝。騅不逝兮可奈何，虞兮虞兮奈若何！”歌數闕，美人之和之。項王泣數行下，左右皆泣，莫能仰視。” 『사기·항우본기』(중화서국) 참조.

소재로 활용되기 시작하여 송금시기에 이르러 향우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지만 단지 제목만 남아 있을 뿐이고 작품은 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¹⁰⁾ 더욱이 패왕과 우희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는 알 수가 없다.

‘패왕과 우희의 이별’ 이야기는 현재 남아있는 작품명을 통해 보면 대략 금원시기에 무대에 등장했으리라 추정된다. 금시기 원본(院本) 중에 패왕과 관련된 작품인 「비원패왕(悲怨霸王)」이 있는데, 이 작품 역시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작품명만 전한다. 그러나 뒤샤오밍(劉曉明)에 고증에 의하면 「비원패왕」은 송 철종(哲宗) 원우(元祐)연간에 장예수(張藝叟)가 장안에 머물렀을 당시 「패왕별우희(霸王別虞姬)」와 「우희답패왕(虞姬答霸王)」을 지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하자면 패왕과 우희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는 금시기에 무대에 등장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¹¹⁾

이런 추측 외에 잡극 중 장시기(張時起)의 ‘패왕과 우희가 해하에서 이별하다’라는 제목의 「패왕해하별우희(霸王垓下別虞姬)」라는 작품이 있다. 간칭은 「별우희(別虞姬)」¹²⁾인데, 향우와 우희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 분명하나 애석하게도 전하지 않는다. 그 내용은 아마도 「향우본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전개되었고, 이 잡극을 기점으로 「패왕별희」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 인구에 회자되어 결국에는 경극 「패왕별희」의 근원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장시기의 「패왕해하별우희」 이후 패왕과 우희의 이별 이야기가 작품을 통해 구체적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원명간의 무명씨의 잡극 「한공경의금환향(漢公卿衣錦還鄉)」이다. 이 작품은 장량과 영포를 주인공으로 하여 한나라 초기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주인공은 장량과 영포이지만 유방이 향우를 평정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어 자연스럽게 향우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향우는 제1막에서는

10) 송대의 패왕과 관련된 작품은 周密의 『武林舊事』의 「官本雜劇段數」에 「霸王中和樂」, 「入廟霸王兒」, 「單調霸王兒」, 「霸王劍器」, 「諸宮調霸王」 등 다섯 작품의 이름만이 실려 있고 작품은 전하지 않는다. 금대에 패왕희와 관련된 작품은 陶宗儀의 『南村輟耕錄』에 「悲怨霸王」, 「范增霸王」, 「草馬霸王」, 「散楚霸王」, 「三官霸王」, 「補塑霸王」 여섯 작품명이 있으나 모두 실전했다.

11) 劉曉明 『雜劇形成史』(中華書局, 2007), 390-391쪽 참조.

12) 조본 『녹귀부』와 천일본에는 「楚霸王別姬」로 수록되어 있다. 또한 『태화정음보』와 『보선당서목』에도 작품명이 수록되어 있다.

충말(沖末)로 늠름하게 등장하지만 제2막에서는 유방의 군대에 쫓기고 해하에서 포위당해 결국 우희와 이별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이별은 바로 '우희의 자살'이라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희: 대왕께서 강동으로 가시면 소첩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요?

항우: (깊은 한숨을 쉬며) 그대는 패공을 잘 모시거라.

우희: 대왕께서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너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 법이거늘. 살아서 항씨 사람이면 죽어서는 항씨 귀신이지요. 소첩 이미 돌아갈 곳이 없으니 대왕의 검을 저에게 주세요.

항우: 검이다.

우희: 대왕께서는 마음 편하게 강동으로 가세요. 소첩 작별을 고향입니다. 소첩은 분디 강동 사람으로 수년을 대왕을 따라 다녔습니다. 아름다운 두 눈썹 은은하고 걸음걸이 사뿐 사뿐하지요. 용모는 경국지색이요 절세 가인이랍니다. 하루아침에 해하에서 패하니 자살하여 황천으로 갑니다.

항우: 우희가 자살하여 죽었다.¹³⁾

위의 내용을 통해 패왕과 우희의 이별이 '자결'이라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희의 자결'로 패왕과의 이별을 묘사하고 있으나 서정성이 떨어진다. 항우는 수년 동안 자신을 따라 전쟁터를 누볐던 그녀가 죽는다고 말하자 '검이다'라고 선뜻 건네는 모습에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아픔도 슬픔도 보이지 않는다. 우희 역시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경국지색에 비유하는 모습에서 패왕에 대한 연민이나 애절하고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은 죽겠다는 강한 성격만이 부각되고 있다.

이 작품은 곡문(曲文)이나 극의 전개 등 예술성이 많이 떨어지는 작품이라¹⁴⁾

13) “虞姬云：大王去江東去，妾身何處歸着。項羽(做沉吟科)云：你善待沛公。虞姬云：大王何出此言，便好道忠臣不待二主，烈女豈嫁二夫。活是項家人，死是項家鬼。妾身已是無歸着，借大王劍與妾。項羽云：兀的是劍。虞姬(做拜辭科)云：大王你安心往江東去，妾身拜辭也。妾本居江東，隨君亦數年，蛾眉雙宛轉，蓮步獨翩翩。玉貌傾城色，花容絕世間，一朝垓下敗，刎首入黃泉。(做自刎科)〔項羽云〕虞姬自刎身卒。八千子弟兵皆散，更待干罷。我領親隨壯士，闖入陳去江東取救軍，再與韓信交戰，未爲晚矣。”『漢公卿衣錦還鄉』，『孤本元明雜劇』 권5(臺灣商務印書館) 참조.

14) 『漢公卿衣錦還鄉』(『孤本元明雜劇』 권5) 참조.

비록 평가받고 있지만 현존하는 패왕과 우희의 이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남아 있는 작품이기에 그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다.

3) 명 전기 심채(沈采)의 「천금기(千金記)」와 청 궁정극 「초한춘추(楚漢春秋)」

(1) 심채의 「천금기」

패왕과 우희의 이별을 「한공경의금환향」보다 좀 더 애잔하게 묘사한 작품이 바로 심채의 「천금기」¹⁵⁾이다. 「천금기」는 한나라 개국공신인 한신(韓信)¹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초왕 항우의 이야기와 한 고조 유방이 대업을 성공시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천금기(千金記)」는 50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초가(楚歌)」, 「해산(解散)」, 「별희(別姬)」, 「설복(設伏)」, 「오전(鏖戰)」, 「문진(問津)」, 「멸항(滅項)」 등은 직접적으로 경극 「패왕별희」가 만들어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 작품은 비교적 완정하게 항우가 해하에서 사면초가를 당하고 우희가 자살로 패왕과 이별하는 내용이 잘 그려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합] 내 당신과 헤어지기 어려워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구려.

[전강] 닭에게 시집을 가서 어찌 닭을 따라 날지 않겠습니까? 어찌 소칩더러 보존하라 하십니까.

[전] 해하가 포위되었습니다. 막사에 계신 장군님 아시는지요?

[정] 어찌된 것이냐?

15) 심채는 자는 練川이며 嘉定 사람이다. 그의 작품에는 「千金記」, 「還帶記」, 「四節記」 등이 있다.

16) 한신(韓信, 미상~BC 196): 유방의 명장이며, 뛰어난 군사전략으로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나라 개국 삼걸 중 한 사람이다. 강소성 회안현(淮安縣)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랐다. 젊었을 때 자신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사타구니 밑을 굴욕을 참고 끝까지 기어 나간 일화는 유명하다. 진나라 말엽 항우의 부하가 되어 여러 가지 대책을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자 유방에게 투항했다. 한신은 당시 유방의 승상인 소하(蕭何)의 권의로 대장군이 되어 유방 휘하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말) 사방이 살기가 충천한 것을 보십시오.
 (정) 영웅의 뜻 처음에는 원대했으나 지금에 이르러 헛되게 되었구나!
 (정) 미인, 나는 죽어도 괜찮으나 단지 당신과 헤어지기가 어렵구려.
 당신은 어디로 가겠소?
 (침) 대왕,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
 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대왕께서 불행을 당하신다면 제가 어
 쨌 다른 마음을 먹겠습니까?
 (정) 됐소. 그대는 가서 한 왕을 잘 섬기시게. 우리에게 헤어지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요.
 (침) 대왕,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제게 삼척 청동검을 주시면 먼저 죽
 겠사옵니다.
 (정) 우미인 그대는 이렇게 끝까지 정조를 지키는 구료. 내가 그대에게
 청동검을 주겠소.
 (침) 대왕, 당신과 이별 합니다. 꿈속에서 다시 뵈지요, 마음 놓고 가세
 요. (자결한다) 저는 죽습니다.
 (정) [박등아] 불쌍한 여인이여, 불쌍한 여인이여...¹⁷⁾

위의 내용을 보면 앞선 살펴본 「한공경의금환향」보다 패왕과 우희의 이별이 더
 옥 더 구체적인 동시에 이별에 대한 애뜻한 감정이 상당히 발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 당신과 헤어지기 어려워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구려”,
 “단지 당신과 헤어지기가 어렵구려” 등은 우희와의 깊은 감정이 있음을 알 수 있
 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 “불쌍한 여인이여, 불쌍한 여인이여”하며 가여워한다. 하
 지만 결국 그는 정절을 보이지 않게 강요하며 우희에게 검을 주고 죽기를 바라고
 있다. 우희 역시 패왕의 장래를 걱정하며 자신을 의심하는 그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자결한다.

이 작품 전체에서 항우는 비록 부정적인 형상으로 등장하지만 「별희」 막에서는

17) “[合] 我和伊，難忍分離，禁不住兩行情淚。〔前腔〕 嫁雞怎不逐雞飛，教妾身如何存濟。……〔賺〕
 (末上報介) 咳下重圍，帳裏將軍知也未？(淨) 你爲何的？(末) 看四下里騰騰殺氣。(淨) 英雄
 志，當初指望造鴻基，如今一旦成虛費！(淨) 美人，我死也罷，只是捨不得你，你到那裏去？
 (貼) 告大王知道，忠臣不事二君，烈女不更二夫。大王倘有不幸，奴家豈存着異心！(淨) 罷罷，
 你去好生伏事漢王罷。我與你別了，再不得相會了。(貼) 大王，你不須疑，賜與我三尺青鋒先勿
 死。(淨) 虞美人，果是這般貞烈啊。我就把青鋒付與伊。(貼) 大王，和你分別去，除非夢裏重相
 會，放心前去。(占自刎介) 粉憔玉碎。〔撲燈蛾〕(淨) 可憐一婦人，可憐一婦人。……”，「千金記」
 (六十種曲 二，中華書局)。

우희와 이별하는 심리를 부각시키고 있어 비극적인 색채가 두드러진다.

(2) 청대의 궁정극 「초한춘추(楚漢春秋)」

「초한춘추」는 청나라 승평서의 월령 승응희의 하나로 편폭이 거대하여 10본 240막으로 패왕이야기 중 가장 편폭이 긴 작품이다. 「초한춘추」는 「천금기」와 명나라 건위(甄僞)의 통속소설인 「서한통속연의(西漢通俗演義)」에 의거하여 지어졌다. 극의 내용과 스토리 구성은 「서한통속연의」를 따랐고 예술수법과 곡사 창작은 「천금기」를 흡수했다. 예술적 관점에서 보면 합성품으로 그 가치가 높지 않지만 경극 「패왕별희」가 완성되는데 많은 공헌을 했다. 이전 어느 작품에서도 우희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다. 우희의 출신, 항우와의 결혼 등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항우와의 구체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초한춘추」는 이런 궁금증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제2본 제7막 「우묘거정(禹廟舉鼎)」과 제8막 「항요득기(降妖得驕)」에서는 힘센 항우가 우왕묘에서 정을 들고 강동자제들을 겁을 주어 함께 거병하기로 하고 또 후에 우장에서 천마 즉 오추마를 굴복시켰다. 제9막 「우장정친(虞庄定親)」에서는 천마를 굴복시키는 것을 지켜보며 우공이 항우의 예사롭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그 자리에서 자신의 딸인 우희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요청하는데 한눈에 반한 항우가 맞아 들인다. 이전의 어떤 극에서도 우희의 출생 신분 혹은 어떻게 항우와 만났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가장 큰 의미는 「초한춘추」에서 처음으로 우희의 출신, 그리고 항우와의 결혼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우희는 회계군 우장인 사람으로 아버지는 우태공 동생은 우자기이며, 항우가 강동에서 거병할 때 항우에게 시집갔다. 제7본 제4막 「추애봉궁(推愛封宮)」에서는 항우가 우희에게 무예와 군사를 배치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며 그들의 애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¹⁸⁾ 이런 다양한 추가적인 내용들로 경극 「패왕별희」는 더욱 인간적이고 실제적이며 풍부해졌다.

18) 「項羽在戲曲中的形象演變」(『戲曲研究』, 2011.2), 99쪽을 참조하여 기술한 것이다.

4) 경극 「패왕별희」

경극 「패왕별희」에 이르러 초패왕 항우와 우희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가장 완성하게 이루어진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패왕별희」 판본은 대략 구분(舊本)인 「초한쟁(楚漢爭)」, 청일거사(淸逸居士)가 집필한 신본 「초한쟁」과 제여산(齊如山)·양소루(楊小樓)·매란방이 개편한 「패왕별희」 등이 있고, 제여산 등이 개편한 「패왕별희」가 현재 널리 통행되고 있다.¹⁹⁾

경극 「패왕별희」는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마천의 「항우본기」의 짧은 이야기를 근간으로 발전해 오면서 가장 멋진 이야기로 탈바꿈 되었다. 「패왕별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이야기는 「항우본기」를 배경으로 하여, 폭정을 일삼는 진나라에 대해 봉기하여 진나라를 멸하고 기세가 등등하였던 초나라 항우가 한나라 유방의 계책에 말려 결국 패하는 내용이다.

제1장에서는 유방의 군사(軍師)인 한신(韓信)을 중심으로 유방 진영의 장수들이 항우를 멸하기 위해 작전을 짜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들은 이좌거(李左車)²⁰⁾를 이용해 항우를 유인하여 해하에서 그들 군대를 포위하여 없앨 계략을 짜낸다. 제2장부터는 이들의 계획에 따라 일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이좌거는 항우의 진영에 찾아가 거짓으로 투항하고, 이를 의심한 항우의 부하들은 간언을 하지만 거친 성격의 항우는 자신의 뜻대로 이좌거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때마침 유방이 항우를 무시하는 방이 항우에게 전달되고 항우는 감정적으로 이에 대응해 출격하려 한다. 부하들은 이것이 유방의 계책을 알아차리고 만류하였으나, 이좌거는 항우를 부추겨 결국 항우는 출정을 결심하게 된다. 이에 우희의 오빠인 우자기는 우희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우희도 항우를 설득하나 그의 뜻을 꺾기 못한다.

19) 경극 「패왕별희」는 「오강자문(烏江自刎)」, 「오강한(烏江恨)」, 「해하위(垓下圍)」, 「구리산(九里山)」, 「십면매복(十面埋伏)」이라고도 불린다. 본 논문에서는 통행본인 「패왕별희」(胡菊人編輯, 『戲考大全』, 宏業書局, 1970)를 중심으로 하고, 이를 정리해 주를 단 「패왕별희」(曾永義編注, 『中國古典戲選注』, 國家出版社, 1990)를 저본으로 했다.

20) 이좌거(李左車, 생몰년 미상): 진나라 말에 초나라 왕족인 조혈(趙歇)을 보좌해, 재건한 초나라의 왕으로 옹립하고 광무군(廣武君)에 봉해졌다. 초나라의 명장이자 전략가였으나, 정형(井陘) 전투에서 한신에게 패배한 뒤 그의 빈객이 되어 유방의 참모가 되었다. 이좌거는 한신을 도와 군사전략과 계책에 대해 많은 조언을 했다고 한다.

항우는 결국 출병했다가 복병에 의해 해하(垓下)[지금의 (安徽省)]에서 포위되어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된다. 당시 한신은 장량의 묘책을 받아들여 항우의 군대를 첩첩으로 포위하고는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진중의 초나라 출신자들을 불러내어 밤마다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러자 사방에서 들려오는 구슬픈 고향 노래를 듣게 된 초나라 군사들은 한신의 계획대로 사기가 급격히 떨어졌고, 탈주병이 속출하게 된다. 이에 천하를 호령하던 항우도 이 노래를 듣고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고 우희에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며 이별을 고한다. 이에 우희는 항우에 대한 정절을 지킨다며 자결한다. 우희가 자결한 뒤 패전을 거듭하며 쫓겨 다니던 항우 역시 오강(烏江)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자결한다.

이처럼 비통함 속에서도 우직해 보이는 패왕의 장렬한 패전, 그리고 죽음으로 지킨 우희의 사랑이 경극 『패왕별희』의 주요한 메시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우: 적군이 사방에서 공격해 오니 만일 내가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두려워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소. 허나 적수가 많으니 승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구려. 만약 패한다면 그대와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이오. (노래한다.)

<서피요관>

만일 내가 이번에 패전한다면,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오.

우희: 대왕께서 이번에 패전하셔도 반드시 강동으로 피하셔서 후일을 기약하셔야 합니다. 낙담하지 마시옵고 더욱이 소첩을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항우: 그대와 십여 년을 함께하며 서로 깊이 사랑하였거늘 어찌 저버릴 수 있겠소. 허나 이번은 행차를 간소하게 해야만 포위망을 뚫을 수 있을 터이니 그대와 동행하기 어려울 것 같소.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우희가 슬피 울고 항우가 걱정스러워한다.) (말한다.) 아— 우희여! 유방이 비록 나와 적이긴 하나 우리 둘은 오랜 친구이니 그를 따르는 것이 좋겠소. 그리하면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면할 수 있고 또 내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이오.

우희: 대왕의 말씀은 옳지 않습니다. 충신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습니다. 대왕께서는 대업을 이루고자 하시면서 어찌 아녀자의 일까지 걱정하십니까? 대왕의 보검으로 그대 앞에서 자결하여 깊은 은혜에 보답하고 대왕의 근심을 덜기를 원하옵니다.

항우: 그대는 생각이 어찌 이리 짧은가!

우희: 폐하! (노래한다.) …….

(우희가 항우에게 검을 달라 했지만 항우는 이를 거절한다.)

우희: 폐하! 사방이 초나라 노랫소리이옵니다. 저들이 다시 부르기 시작하는군요.

항우: 어디 들어 보자.

(우희가 급히 검을 빼내어 자결하며 퇴장한다).²¹⁾

위의 내용을 통해 ‘역발산기개세(力拔山氣蓋世)’라며 천하를 호령했던 항우의 좌절과 그와의 사랑을 죽음으로 지키고자 하는 우희의 절개와 사랑에서 서사적 감상과 인간적 비장미를 느낄 수 있다. 적지를 필사적으로 탈출해야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항우는 전쟁터마다 자신과 같이하며 지낸 우미인을 데려가지도 남기고 갈 수도 없어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절박한 심정이 절절히 나타내고 있다. 우희 또한 패왕의 앞날을 염려하고 다독이며 그간의 사랑과 은혜를 죽음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비록 항우는 ‘하늘이 망하게’ 하는 실패한 영웅이지만 일세의 영웅이고, 우희는 그런 영웅의 애첩이다. 자신을 사랑한 영웅(항우)이 살아있으면 살고, 영웅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이상이다. 우희는 영웅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도 적의 포로가 되어 목숨을 구차하게 이어서도 안 된다. 이것이

21) “(項) 敵兵四路來攻, 倘不出迎, 未免怯戰。但是我寡不敵衆, 勝負難定。倘若戰敗, 要與妃子相見, 恐怕難了。(唱西皮搖板) 孤王此一去倘若戰敗, 必是天亡我不得歸程。(姬) 大王此去倘若戰敗, 務必逃往江東再圖後舉。不可心灰意墮, 更不必以妾為念也。(項) 妃子十載相隨, 萬般恩愛, 怎能相捨。只是此番交戰, 必須要輕車簡從, 方得冲圍而出, 不得與妃子同行, 這便怎處。(虞姬非哭、項羽作愁思狀) (項) 哎呀, 妃子啊, 我想劉邦雖然與他為敵, 但是我二人却係舊交。不若你隨了他去。一來免得一人在此受苦, 二來也免得孤王此去?掛。(姬) 大王此言差矣, 忠臣不事二主, 烈女不嫁二夫。罷, 大王欲圖大業, 豈可顧及婦人。願乞大王腰間三尺寶劍, 勿死大王面前, 以報深恩, 也免得大王掛念。(項) 妃子豈可尋此短見。(姬) 大王啊, (唱) ……(虞姬向項羽索劍項王不允)(姬) 大王, 四面楚歌, 又唱起來了。(項) 待我聽來。(虞姬急拔劍自刎下)”, 『霸王別姬』, 『中國古典戲劇選』, 890-891쪽.

바로 영웅에 대한 사랑의 충정이며, 『패왕별희』의 좋은 교훈인 것이다.

3. 패왕과 우희 이야기 확장에 따른 패왕과 우희의 형상 변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마천의 『사기』 「항우본기」에서 시작된 패왕과 우희의 간단한 역사고사가 오랜 시간을 거쳐 ‘패왕과 우희의 이별(霸王別姬)’이라는 이야기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패왕과 우희의 형상이 각 작품과 시대별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그 형상의 변화에 내재된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패왕의 형상 변화 : 실의(失意)한 영웅에서 비정(悲情)한 영웅으로

사마천의 『사기』 「항우본기」에서 항우는 쌍동자(雙瞳子)에 키는 8척이고 정을 번쩍들 만큼 힘이 세고 기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 스스로도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개는 온 세상을 덮을 듯한데,
시운이 불리하니 오추마도 달리지 않는구나.
오추마가 달리지 않으니 어찌한단 말인가?
우희야 우희야 어찌하면 좋을꼬?²²⁾

이처럼 힘세고 기세가 대단한 항우이지만 시운이 따르지 않고 더욱이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여’ 결국 ‘오강에서 자결’하는 실의(失意)한 영웅이 되었다.

그러나 원명시기에 무명씨의 잡극 「한공경의금환향」에서 처음으로 ‘자결’이라는 방식으로 우희와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항우가 우희에 대한 어떤 감정도 느낄 수가 없고 심지어는 마치 우희가 죽기를 바랐던 비정(非

22) “力拔山兮氣蓋世/ 時不利兮驩不逝/ 驩不逝兮可奈何/ 虞兮虞兮奈若何”, 『霸王別姬』, 『中國古典戲劇選注』, 890쪽.

情)한 영웅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면 우희가 “소첩 이미 돌아갈 곳이 없으니 대왕의 검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자 “여기 검이다”라고 바로 검을 그녀에게 준다. 심지어는 “우희가 자살하여 죽었다”라고 하며 우희의 죽음에 대해 전혀 슬픔을 느끼지 않는다.²³⁾

이런 비정한 항우는 「천금기」와 「초한춘추」에 와서 비극적이지만 사랑이 충만한 영웅으로 등장한다. “당신과 헤어지기 어려워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구려”, “단지 당신과 헤어지기가 어렵구려” 등은 우희와의 깊은 감정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녀의 죽음에 대해 “불쌍한 여인이여, 불쌍한 여인이여”라 외치며 마은 아파하지만 어쩔 수 없는 비극적인 영웅이 되었다. 「초한춘추」에서도 여치의 입을 빌려 늘 함께하는 그들의 애정을 칭송하고 있다.²⁴⁾ 이로 명칭시기에는 항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재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항우의 형상은 경극 「패왕별회」에 이르러 완성된다. 그는 다양한 성격을 지닌 인간적이며 남성적 기질이 강한 영웅 중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다. 경극 「패왕별회」에서 항우는 거칠고 투박하지만 염치를 이는 그리고 사랑을 이는 멋진 영웅이며 동시에 ‘하늘이 망하게 하여’ 어찌할 수 없음에 아파하는 슬픈 사랑의 영웅으로 등장한다.

우선 그의 단순하면서도 거칠고 투박한 성격을 작품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항우: 과인은 단지 말로써 그대의 심중을 알아보려 했을 뿐이오. 내 오래전부터 광무선생(廣武先生)의 이름을 들어 왔소. 당시에 또한 조나라로 가서 약속을 지키려 했던 것이 바로 내 계획이었소. 오늘 서로 만나게 되니 뜻밖의 기쁨이오. 과연 진심으로 내게 왔으니, 응당 조석으로 그대와 함께 한을 멸할 방도를 강구하겠소.

이좌거: 대왕께서 신을 받아주시니 대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항우: 그대는 진실로 이 나라의 신하로다.²⁵⁾

23) “虞姬云：大王何出此言，便好道忠臣不待二主，烈女豈嫁二夫。活是項家人，死是項家鬼。妾身已是無歸着，借大王劍與妾。項羽云：兀的是劍。項羽云：虞姬自刎身卒”，「漢公卿衣錦還鄉」(『孤本元明雜劇』 권5) 참조.

24) 行則同行，坐則同坐，何等恩愛. 「초한춘추」, 제7분 제7막 참조.

25) “(項) 孤特用語相戲耳。久聞廣武先生之名，當時尚欲往趙國約來，爲孤畫策。今日相逢，喜出望外。果然實心歸孤，孤當朝夕與先生討論破?之策。(李) 大王留臣，臣當爲陛下效死。(項) 卿眞社

단지 말 몇 마디 나누고 상대편의 책사였던 사람을 너무도 쉽게 믿으며 심지어는 ‘진실로 이 나라의 신하’로 여기는 항우의 단순한 성격을 볼 수 있다. 또한 한신이 자신을 모함하는 방을 보고 바로 군사를 일으키는 그의 불같은 거친 성정을 볼 수 있다.

항우: 어디 보자. 제후들이 봉기하였으나 장수들을 의로써 받아들이지 못하네. 인심은 초(楚)를 떠났고 하늘의 뜻이 유방에게 있네. 머지않아 해하(垓下)는 망할 것이며 때가 되면 패루(沛樓)는 잃을 것이다. 불꽃같이 맹렬히 타고르는 번뜩이는 검이 항우의 목을 베자고 외치네. (노래한다.)

<서피쾌판(西皮快板)>

한신을 요절내려 굳게 결심하였네,
나를 심히 깔보고 능멸하였으니,
군대를 움직여 너의 목숨을 끝까지 쫓아,
사로잡아 부수어 버리리라.

(말한다.) 경들은 삼군(三軍)에 지금 즉시 군사를 일으키라 전하라. 실수가 있어서 는 아니 된다.²⁶⁾

항우는 먼저 이런 방이 계략인지 여부도 따져 보지도 않고 바로 군대를 일으키는 무모함이 있지만 인간으로서 염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며 최후까지 영웅의 기상과 모습을 보인다.

항우: 나와 말 모두 가지 않겠네. 자네 혼자 가시게.
민자기: 강동의 어른들이 폐하를 무척 기다립니다. 폐하께서 강을 건너 시길 바랍니다.
항우: 그들이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稷之臣也”, 『霸王別姬』, 『中國古典戲劇選注』, 879쪽.
26) “(項) 待孤看來, 倡義會諸侯, 大將無道收. 人心咸背楚, 天意? 炎劉. 指日亡垓下, 臨時喪沛?. 劍光生烈燄, 赫赫斬項王頭. 哇呀呀(唱西皮快板) 咬定牙關罵韓信, 辱罵孤王太欺情. 行師定要追爾命, 拏住賊子碎屍分. (白) 衆卿傳旨, 吩咐軍即日起兵, 不得有誤. (周) 且慢. (項) 周卿爲何阻命. (周) 臣啓大王, 此乃韓信誘兵之計”, 『霸王別姬』, 『中國古典戲劇選注』, 880쪽.

민자기: 강동은 비록 작지만 왕이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대왕께서 강을 건너시기 바랍니다.

항우: 여보시게나 정장, 당신은 모르네. 내가 예전에 8천 병사들을 이끌고 강을 건너와 이제 나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무슨 면목으로 강동의 어른들을 보겠나.

민자기: 승패는 병가의 상사입니다. 폐하 속히 강을 건너시지요. 한나라 군이 쫓아옵니다.

항우: 한나라 병사들의 말을 들으니 내 머리를 가져간 자는 천금과 만호의 상을 받게 된다고 하네. 그래, 좋네. 자네에게 내 목을 줄 테니 그 공으로 상이나 받게.²⁷⁾

위의 내용은 항우의 인간다움과 호걸다움이 잘 표현되어 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완벽한 영웅의 표본으로 항우가 뽑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인간다운 영웅이기에 우희와의 이별이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다.

항우: 그대와 십여 년을 함께하며 서로 깊이 사랑하였거늘 어찌 저버릴 수 있겠소. 허나 이번은 행차를 간소하게 해야만 포위망을 뚫을 수 있을 터이니 그대와 동행하기 어려울 것 같소.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우희가 슬피 울고 항우가 걱정스러워한다.) (말한다.) 아— 우희여! 유방이 비록 나와 적이긴 하나 우리 둘은 오랜 친구이니 그를 따르는 것이 좋겠소. 그리하면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을 면할 수 있고 또 내 걱정도 덜 수 있을 것이오.....

<박등아>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프구나.
내 오늘 쓸모없이 산을 뺨을 힘은 있으나,
한 여자도 지키지 못하였네.²⁸⁾

27) “(項) 我人馬都不去了, 你且去罷. (閔) 江東父老, 極盼大王, 還望大王過江. (項) 他們縱有憐我之心, 我自心豈能無愧! (閔) 江東雖小, 亦足以王, 還請大王過江爲是. (項) 哎呀, 亭長, 你却不知我昔日帶領八千子弟過江西來, 如今祇某一人, 有何面目去見江東父老. (閔) 勝敗軍家常事, 環請大王速渡, 那漢兵看看追來了. (項) 我聞漢軍有言, 能得我頭者, 賞千金封萬戶侯. 也罷! 就把首級賞賜於你, 請功受賞去罷”, 『霸王別姬』, 『中國古典戲劇選注』, 892-893쪽.

28) “(項) 妃子十載相隨, 萬般恩愛, 怎能相捨. 只是此番交戰, 必須要輕車簡從, 方得沖圍而出, 不

‘역발산기개세’한 난세의 영웅 항우이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가슴 아픔이 너무도 슬프다. 이제 그는 비극적인 영웅이 아니라 슬픈 정을 간직한 비정(悲情)한 영웅이 되었다.

2) 우희의 형상 변화: 미미한 미인에서 매력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마천의 『사기』 「항우본기」에서 우희는 그저 ‘이름이 우인 미인이며 항우가 늘 데리고 다니는 어떤 신분인지도 모르는 그저 명마 추와 동격인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그녀는 원명잡극의 무대에 역시 ‘질세가인’으로 등장하며 자신을 ‘강동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공경의금환향」에서 우희는 패왕에 대한 연민이나 애절하고 깊은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은 죽겠다는 강한 성격만이 부각되고 있다. 우희는 “대왕께서 강동으로 가시면 소첩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요?” 라고 묻고 어찌 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이렇게 강하지만 우희가 심채의 「천금기」에서는 정이 있는 애잔한 귀비다운 풍모로 등장한다. 패왕과 죽음으로 이별을 앞두고 “당신과 이별 합니다, 꿈속에서 다시 뵈지요, 마음 놓고 가세요”라고 말한다. 이는 ‘정’이 있는 그리고 패왕에 대해 연민을 가진 모습이지만 결국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을 선택해야만 했던 일종의 도덕적 기호(記號)에 지나지 않는다.

우희의 형상은 경극 『패왕별희』에서 완성된다. 단지 미인이기만한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던 그녀가 중심인물이 되어 매력적이고 주체적인 형상으로 등장하여 원대한 식견을 겸비한 여장부 역할을 하고 있다. 우희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침착하면서도 기지가 넘치며, 섬세하지만 결단력 있는 여성이 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항우를 보필한다.

得與妃子同行，這便怎處。(虞姬非哭、項羽作愁思狀)(項)哎呀，妃子啊，我想劉邦雖然與他為敵，但是我二人却係舊交。不若你隨了他去。一來免得一人在此受苦，二來也免得孤王此去？掛。……(唱撲燈蛾)一見淚雙傾，好教人、亂箭穿心。俺今空有拔山力，不能保護一婦人，「霸王別姬」，『中國古典戲劇選注』，890-891쪽.

때로는 참모로 때로는 항우를 도다이는 현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희: 방금 오라버니의 말을 들으니 출병은 매우 불리하다. 아, 폐하의 성정이 불같이 거칠어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머지않아 한에 패할까 두렵구나. 생각할수록 더욱 근심스럽구나. (노래한다.)

<서피만판(西皮慢板)>

후궁에서 홀로 곰곰이 생각하자니,
앉으나 서나 마음이 편치 않구나.
대왕이 평소 강한 성격으로,
뒤로 들어오는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네.
서초가 다른 이에게 병합당하여,
10여 년 대왕의 용맹스런 명성이 헛되이 될까 두렵기만 하구나.

(환관 둘이 패왕을 모시고 후궁으로 들어온다.) (항우가 노래한다.)

<서피요판>

오늘 이좌거를 얻은 것은 초나라의 행운이다.
궁으로 가서 귀비와 출병에 대해 의논해 보자구나.

우희: 소첩, 대왕을 맞이하옵니다.

항우: 부인 일어나시오. 내 아주 괴롭소이다.

우희: 폐하, 무슨 일로 괴로워하십니까.

항우: 그 가증스런 유방이 제후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켜 과인과 싸우려 하오. 또한 곳곳에 방을 붙여 나를 능멸하고 있으니 어찌 괴롭지 않겠소.

우희: 폐하, 지금은 견고한 방어 시설을 마련하고 구원병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가 적은 폐하의 군대가 많은 적을 감당할 수 없어 유방의 간계에 걸려들 것입니다. 폐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항우: 부인은 유방이 변덕스럽고 한신이 간교하다는 것을 어찌 알았소? 내 이번엔 출전하여 반드시 유방을 멸하고 한신을 생포하여 한을 풀 것이 오.

우희: 병가에서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폐하께서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신다면 세력이 막강한 한의 병사와 뛰어난 한신의 지략 때문에 승산이 없을 것입니다. 소첩이 보기에는 그저 굳게 지키고 출병하지 않

으셨으면 합니다.

항우: 부인의 말이 도리에는 맞지만, 내가 출병하지 않으면 제후들에게 수치스럽지 않겠소.

우희: 급하고 썰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웅입니다. 오늘 잠시 참을 수만 있다면 후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또 누가 비웃겠습니까? 폐하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²⁹⁾

이전 어느 자품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이다. 우희는 병법과 전략에 능한 참모로서 항우에게 간언을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음과 같이 따뜻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

항우: 막 균령을 하달했으니 어찌 되돌릴 수 있겠소? 한나라를 멸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기로 결심했으니 부인은 아무 말도 마시오.

우희: 이미 폐하의 마음이 정해졌으니, 소첩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출병하시는지요?

항우: 길일이 내일이니 부인도 나를 따라갑시다.

우희: 대왕께서 이번에 가시어 승리하시길 바라옵니다. 안에 술상을 준비하였으니 폐하께 한잔 올리겠습니다.

항우: 우리 기분 좋게 한잔합시다. 들시다!

우희: 드시지요. 조속히 승리하길 바라옵니다.

항우: 어서 승리를 거두어 평안을 누리십시오.³⁰⁾

29) “(姬) 適聽御弟之言, 出兵甚是不利. 咳, 祇是大王性情剛猛, 不納忠言, 恐日久必敗於漢. 思想起來, 好不令人愁悶也. (唱西皮慢板) 獨坐在後宮院自思自付, 不由人一陣陣坐臥不寧. 大王爺他平日剛強成性, 後常裏進忠言不肯納聽. 怕的是西楚來被人吞併, 辜負了十數載英勇威名. (二龍套引霸王回宮介上) (項唱西皮搖板) 今得了李左車楚國之幸, 進宮去與妃子議論出兵. (姬) 妾妃接駕. (二侍衛下) (項) 妃子平身, 可惱嚇可惱. (姬) 大王為何着惱. (項) 可恨那劉邦會合諸侯興兵前來, 與孤征戰. 又散出許多揭帖辱罵孤家, 你道惱也不惱. (姬) 大王就當深溝高壘(?)等候救兵, 不然恐寡不敵衆, 致墜劉邦奸計. 不知大王意下如何? (項) 妃子你那裏知道, 那劉邦反復無常, 韓信奸詐. 孤此番出兵, 定滅劉邦, 生擒韓信, 方消我心頭之恨. (姬) 兵家征戰, 貴在知彼知己, 不可意氣從事. 大王若因一時氣忿, 不能制止, 恐漢兵勢衆, 韓信多謀, 實非大王之福. 以臣妾看來, 只宜堅守, 不可出兵. (項) 妃子之言, 雖是有理, 祇是孤不出兵. 豈不被諸侯恥笑. (姬) 大丈夫能屈能伸, 方為俊傑. 今日能暫時容忍, 將來必一戰成功. 那時又有何人恥笑, 還望大王三思”, 『霸王別姬』, 『中國古典戲劇選注』, 881-882쪽.

30) “(姬) 既是王心已定, 妾妃不敢多奏, 不知何日發兵. (項) 明日良辰, 妃子隨我御駕親征. (姬) 願為大王此去, 旗開得勝, 馬到成功. 後宮備酒, 與大王餞行. (項) 當與妃子痛飲. 請. (姬) 請. 但願出兵早得勝. (項) 即日成功享太平”, 『霸王別姬』, 『中國古典戲劇選注』, 882쪽.

그녀는 늘 항우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긍정의 역할을 하며 현후(賢后)이며 동시에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염려하며 사랑하는 현명한 국모이기도 하다.

우희: 아! 비록 밤 풍경은 아름다우나, 사방의 들판 모두 슬픔의 탄식 이구나. (탄식한다.) 진(秦) 왕이 무도하여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 동에서 전쟁하고 서에서 정벌하니 죽음이 잇따르는구나. 그 죄 없는 백성들을 부모와 멀리 헤어지게 하고 처자식을 버리게 하니, 원망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가련하고 갈 곳 없는 강변의 백골은 젊은 아내가 여전히 꿈에서도 그리는 남편이라네.³¹⁾

이런 현명한 우희이기에 패왕과의 이별에서도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은에 보답하고 항우의 근심을 덜기 위해 자결을 결심한 우희는 굳센 어조로 항우에게 싸움에서 지더라도 반드시 후일을 도모해야 하며, 애첩 따위를 염려해서 경솔한 행동은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패왕이 보검을 주기를 거부하자 우희는 왕이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린 틈을 노려 칼을 빼앗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한나라 군사들이 이미 포위하여,
사방에는 온통 초나라 노랫소리뿐.
대왕이 의기를 상실했는데,
소침만 어찌 홀로 살아남겠습니까!³²⁾

그녀가 죽기 직전 부른 이 노래는 항우에 대한 그녀의 연민, 사랑, 충절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한 남자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그 고결함이 더욱 감동적이고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31) “咳，夜色雖好，只是四野俱是悲嘆之聲。(嘆介)只是秦王無道，兵戈四起，以致西戰東征，死亡相繼，使那些無罪黎民，遠別爹娘，拋妻棄子，那得教人不怨。正是可憐無定河邊骨，猶於春閨夢裏人”，「霸王別姬」，《中國古典戲劇選注》，888쪽.

32) “(姬)大王啊，(唱)漢兵已略地，四面楚歌聲。大王意氣盡，賤妾何獨生。(虞姬向項羽索劍項王不允)(姬)大王，四面楚歌，又唱起來了。(項)待我聽來。(虞姬急拔劍自刎下)”，「霸王別姬」，《中國古典戲劇選注》，891쪽.

4. 나오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왕과 우희의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항우본기』에서 언급된 단순한 역사고사가 발전하여 금원시대에는 ‘우희의 자결’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패왕과 우희의 이별’로 확장되었고, 명청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정’과 인간다움이라는 내용이 확대되어 경극 『패왕별희』에 이르러 가장 완정하고 멋진 이야기로 탈바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패왕과 우희의 형상은 그 시대의 문화적 요소에 의해 끊임없이 변한다. 항우는 「항우본기」에서는 그가 그 시대에 유방에게 패해 실의(失意)한 영웅으로 그려졌다. 원대에는 비정(非情)한 영웅으로 등장하는데 그 원인은 위진남북조시기 부터 그가 민간에서 재앙을 주는 ‘사신(邪神)’으로 전해져오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³³⁾ 그런 항우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로 작품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명대에는 ‘정’은 좀 있지만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시대적 분위기와 어우러져 그는 비극적인 영웅이 되었다. 경극 『패왕별희』가 제여산에 의해 개편될 당시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계속된 열강의 침략으로 위기의식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남성적 기질을 갖춘 영웅이 필요했고 이런 시대적 요구에 의해 강하지만 슬픈 영웅 즉 비정(悲情)한 영웅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우희 역시도 항우처럼 다양한 형상으로 변화했다. 「항우본기」에서 우희는 미인이지만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원대에 이르러 우희는 절세가인이 되지만 매력은 없고 성격만이 강한 여성으로 나타났다. 명대에는 ‘정’이 있는 귀비의 형상으로 등장하지만 정절을 중시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정절’을 위해 죽음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적 기호에 지나지 않았다. 경극 『패왕별희』에 이르러 이런 미미한 존재였던 우희가 극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특히 5·4시기 근대 개인주의적 주체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을 당시 우희는 매력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등장하

33) 「項羽在戲曲中的形象演變」(『戲曲研究』, 2011.2), 94쪽 참조.

여 항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이 되었다. 이처럼 패왕과 항우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가장 매력적인 항우와 우희의 형상은 경극 「패왕별희」에서 완성되었다. '역발산기개세'하고 남성적인 패왕의 장렬한 패전, 그리고 죽음으로 지킨 우희의 사랑이 '좋은 교훈'이 되어 중국인의 심금을 울리며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것이다. '인생여희, 희여인생(人生如戲, 戲如人生)'이란 말처럼 「패왕별희」에는 중국인의 삶의 깊이가 묻어나는 인생철학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이 연구가 기초로 하여 더욱 확장된 「패왕별희」 연구가 진행되기 바란다.

〈參考文獻〉

-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73.
胡菊人編輯, 『戲考大全』, 宏業書局, 1970.
曾永義編注, 『中國古典戲劇選注』, 國家出版社, 1990.
『孤本元明雜劇』, 臺灣商務印書局.
『六十種曲』, 中華書局
차미경역, 「패왕별희」, 지식올판드느지식, 2013.
차미경, 『상징의미학-경극』, 신서원, 2005.
劉曉明, 『雜劇形成史』, 中華書局, 2007.
林怡, 「論霸王戲嬗變」, 『贛南師範學院學報』, 2005.4.
任榮, 「項羽在戲曲中的形象演變」, 『戲曲研究』, 2011.2.

〈中文提要〉

文学与历史具有不可分割的互动关系。深入人心的历史往往离不开文学艺术形式的再次加工升华和精彩演绎。「霸王别姬」在中国史书上仅有片言只语的记载,但是经过金院本元明杂剧传奇京剧等艺术形式的不断演绎,原本单一的历史片刻放出无比的神采,其中所包含的深刻文化内涵值得探究。因此本文以霸王跟别姬的故事为主,探讨其故事的来源与发展,以及

在其故事发展过程中展现出来的霸王跟虞姬的形象。

关键词：京剧, 霸王别姬, 史记, 项羽本纪, 千金记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에 접수되어 2013년 1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3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